**시의 이미지 분석**

**2018312567 조명하**

**1. 강의 이전 사전지식 기반 해석**

10주차 시어의 감각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시에서의 이미지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이어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등이 떠올랐다. 즉, 감각적 지각이 시에서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의 이전 사전지식을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는 정지용의 <압천>을 골랐다.

압천(鴨川) 십리(十里)ㅅ벌에

해는 저믈어……저믈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자졌다…… 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여 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여 짜라. 바시여라. 시언치도 않어라.

역구풀 욱어진 보금자리

뜸북이 홀어멈 울음 울고,

제비 한 쌍 떠ㅅ다,

비마지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랑쥬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압천(鴨川) 십리(十里)ㅅ벌에

해가 저믈어……저믈어……

정지용, <압천>

구조상 이 시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처음과 끝인1연과 7연에서 이 시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인 압천에 노을이 지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각 연의 두 번째 행에서 격조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1연에서는 ‘해는’으로, 7연에서는 ‘해가’로 나타나 전체 시상이 노을 지는 풍경으로 집약된다.

2연에서는 ‘압천’과 ‘해’를 의인화하여 날마다 해가 지는 것을 ‘압천’이 날마다 ‘님(해)’을 보낸다고 표현했다. 두 번째 행의 ‘자졌다’는 ‘잦다’를 기본형으로 보고 ‘액체가 증발되거나 점점 졸아서 없어지다’의 뜻을 가져와 ‘물이 말랐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뒤에 ‘여울 물소리’를 덧붙여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압천의 강물이 말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여울’은 강이나 바다 등에서 깊이가 얕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의미하므로 ‘여울 물소리’는 압천의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를 의미하고, 화자는 이 여울물 소리를 ‘압천이 날마다 님과 이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이 자졌다’는 이러한 슬픈 정서에 이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목이 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연에서는 ‘찬 모래알, 찬 사람의 마음’ 등의 시어로 촉각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압천 강물에 부숴진 모래알과 이별한 사람의 마음을 동일시해 ‘차갑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어지는 ‘쥐여 짜라, 바시여라, 시언치도 않아라’에서는 빠르게 흐르는 압천의 강물이 아무리 모래알을 쥐어 짜고 부수어도 그 모양이 시원치 않아 압천을 내려다보아도 해소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강물이 흐른다는 이미지는 화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상상하게 만든다.

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는 눈물을 연상하게 하는데, 4연에서는 ‘울음’이라는 시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역구풀이 우거진 보금자리에 뜸북이 홀어멈이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의 시선과 관심이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것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은 12살에 동갑내기 ‘송재숙’과 결혼했다고 한다. 굳이 ‘홀어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국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또는 타국에 홀로 사는 자신의 처지를 뜸북이와 동일시했다고 해석해도 가능할 것이다.

5연에서는 제비 한 쌍이 비맞이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4연에 있는 뜸북이 홀어범과 대조되기도 하지만 ‘비맞이 춤’을 춘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 압천은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더 세차게 흐르는 강이기 때문이다. 외로운 화자의 처지와 제비 한 쌍의 대조, 그로 인해 슬픔의 정서가 고조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타난다.

6연에는 ‘수박 냄새 품어 오는 저녁 물바람’과 ‘오랑쥬 껍질 씹는 젋은 나그네의 시름’을 같이 배치했다. 단 수박 향기와 시고 쓴 오렌지 껍질의 맛이 대조된다. 이것을 각각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냄새와 직접 먹으면서 혀로 느끼는 맛으로 표현한 점도 절묘하다. 일본에서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렌지 껍질처럼 씁쓸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껍질은 과육의 외부에 있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렌지 껍질을 씹는’이라는 미각적 이미지는 이방인으로서 소외되는 나그네의 시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이 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이미지가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드러난다. 풍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노을이 지는 압천의 풍경과 그것을 보고 느끼는 외로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 강의 이후 시의 이미지**

수업시간에 배운 시에서 이미지의 구현 방식 중에서 이미지의 초점화 방식이 가장 새로웠다. 이전에는 시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시가 될 수도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초점화, 즉, 하나의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홀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행숙의 <홀림>은 제목에서부터 이미지의 초점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머리를 푸는군요. 뒤통수 중앙에 꼭, 묶여 있던 머리가 와와와 흩어지는군요. 머리는 머리를 떠날 수 없지만 그 순간은 정말 어디로든 달아날 것 같았어요. 바람과 마구 섞이는 것들. 머리는 머리로부터 자랐지만 머리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혼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잘라낸 적도 있어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쓱, 잘리고

그리고 천천히 자랐습니다. 뒤통수 중앙에 꼭, 묶여 있던 머리가 그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나 봅니다. 머리가 머리로부터 달아날 때 그녀가 조금 졸아드는 걸 봤어요. 그녀가 잡아매고 있었던 게 무얼까요? 그런 건 없다고 그녀는 모여 있던 머리를 푸는 걸까요? 그녀는 지금 산만합니다. 그녀의 머리 속으로 들어오던 열 개의 손가락처럼 그렇게

김행숙, <홀림>

수업을 듣기 전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대한 사전지식만으로는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시는 화자가 ‘그녀가 머리를 푸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풀려난 머리카락에 대한 상상이 이 시를 이루고 있다. 이미지는 실체에 대조되는 개념이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화자가 포착한 그녀가 머리를 푸는 현실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두 층위를 이루고 있으며, 후자를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풀려난 머리카락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풀려난 머리카락의 이미지’는 감각적 지각으로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언어로 실체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는 실체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는 오히려 그 간극을 활용하여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화자는 그녀가 머리를 푸는 순간 흩어지는 머리카락의 움직임에 홀려 있다. 이 시에서는 머리를 묶든 풀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두피와 묶여 있다가 풀리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머리카락이 대조된다. 1연의 ‘머리는 머리를 떠날 수 없지만’이라는 말에서 앞의 머리는 출렁이는 머리카락을 의미하고, 뒤의 머리는 두피를 의미한다. 머리와 머리카락은 연결되어 있지만 화자는 움직이지 않는 두피와 움직이는 머리카락 사이에서 단절감을 느낀 것이다. 이 단절감이 ‘머리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로 나타나고, 이 단절감은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쓱, 잘리고’로 심화된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아무리 잘라도 다시 자라난다. 화자는 머리카락의 그 선명한 존재감에 집중해 머리카락이 그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머리를 묶고 풀 때 두피가 당겨지고 풀려나는 감각을 머리카락을 주체로 설정해 묘사하는 점이 이 시의 재미있는 점이다.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1연에서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듯 했지만, 2연에서 그녀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그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2연에서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녀의 머리 속으로 들어오던 열 개의 손가락처럼 그렇게’는 머리를 묶기 위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는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녀가 열 개의 손가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시는 1연과 2연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1연의 7문장과 2연의 7문장이 서로 대응된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잘리고’, ‘그렇게’처럼 완결되지 않은 형식으로 구성된 점이 ‘홀림’이라는 상태를 잘 표현한다. 어떤 대상에 홀려 있는 상태는 어느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뚝 끊기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이 ‘과거-현재-미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 시가 화자의 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과거에 그녀가 머리를 잘랐던 것,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던 것, 그 머리카락을 열 손가락으로 묶는 것, 그 머리카락을 푸는 것으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났을 텐데, 화자가 그녀가 머리를 푸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부터, 화자의 상상, 의식의 흐름대로 사건들이 재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흐름은 풀려난 머리카락의 이미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이미지의 초점화를 잘 보여준다.